

200자 안내

살아있는 부처

불교영상학회 엮음

육신성도를 이룬 7개국의 고승 22인의 육신 보살을 집중조사, 발굴한 현장조사결과를 모은 책으로 현존하는 육신보살의 생생한 현장 사진과 취재기가 실려있다. 현대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인 육신보살에 관한 이 책은, 고승들의 사상과 육신불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지장법사와 중국의 육조혜능, 링린포체와 육신공양을 한 베트남의 왕독스님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교영상 / A5신 / 425면 / 8000원

17255일간의 침묵

김원영 지음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의 강제징발에 의해 치열한 격전지인 오키나와 전투에 참가했던 조선 청년 김원영씨의 일기. 미국의 용단폭격과 일본인의 멸시와 감시,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던 저자가 그 와중에 몽당연필 한자루로 담배종이에 기록했던 이 일기는 47년(17255일)이 지나 책으로 묶인 것이다. “전쟁터에 함께 끌려간 고향친구들이 죽게 되면 기일이 라도 알려줘야겠다”는 심정에서 썼다는 저자의 이 일기는, 평범한 인간들에게 전쟁은 과연 무엇을 남기는가를 절실하게 보여준다.

장락 / A5신 / 330면 / 5000원

권두수선생의 낙법

이석범 지음

시간강사인 주인공이 정식교사가 되기까지의 1년간을 통해 우리 교육현장의 모순을 경쾌하고 해학적인 필치로 그린 소설. 고교 교사들의 세계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가는 더 나아가 책임은 없고, 횡포만이 남아 있는 교육현장을 풍자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 학교는 한국사회의 온갖 모순이 집약되어 있는 표본이라는 게 이 작품의 결론인데, 그러나 작가는 “아무리 지탄받는 교사라도 칭송받는 장사꾼보다는 몇배나 순수하다는 말을 믿고 있다”고.

민음사 / A5신 / 316면 / 5000원

가난이 죽인 불쌍한 내 자식이 마지막 사형수이길 바랍니다

박삼중 지음

‘사형수 어머니들이 부르는 통곡의 노래’ 시리즈 중 3번째권. 제조사의 대부로 불리며 교도소 교화에 전념하고 있는 박삼중님이 직접 보고 겪은 사형수들의 기구한 사연과 그들의 어머니들의 애끓는 심정을 담은 책이다. 칠순 노모가 사형수인 아들의 업을 대취하기 위해 온갖 갖은 일을 하다가 결국 대통령 특사로 무기수로 감형된 경우 등 그 어떤 문학작품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통탄의 삶과 모성애를 담고 있다.

태일 / A5신 / 286면 / 4500원

거품경제

노구치 유키오 지음 / 소정선 옮김

일본 橋一大교수인 저자가 ‘거품현상’에 대해 단순한 계량적 분석을 떠나 “노동의 신성함에 기초한 건전 경제확립”이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한 경제서. 거품현상의 본질을 추적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처방을 제시한 이 책은, “과연 자본주의와 거품현상은 불가분의 관계인가”란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황제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과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는 경제환경이 존속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말길 / A5신 / 250면 / 5500원

5분간의 사색

윤석인 엮음

과학자, 철학자, 문인 등 세계적인 인물들이 남긴 명언을 모은 명언집. 단편적 명언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인생과 사랑 국가 사회에 대한 사유의 시간과 반성의 계기를 갖자는 의도에서 출판된 이 명언집은, 인생 인간 인격 노력 처세 명예 건강 돈 술 정치 경제 전쟁 평화 등 소항목을 나누어 주제별로 명언을 모아 찾아 읽기 쉽도록 편집했다. 엮은이는 동양통신 조사실장.

명문당 / A5신 / 416면 / 5000원

그들의 조국

로버트 해리스 지음 / 박대원 옮김

이 소설은 히틀러의 나치독일이 2차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대독일연방을 구축, 유럽을 지배하게 된다는 가상의 역사를 그린 대체역사소설. 대독일제국의 등장으로 미소냉전체제가 아닌 미독냉전체제로 국제정세가 진행되는 가상의 현실을 다루고 있는 이 소설의 작가는, 영국의 독일통 언론인으로 히틀러의 가짜 일기를 입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독일언론의 다툼을 그린 논픽션 「히틀러 팔기」를 펴내기도 했다.

친구 / A5신 / 372면 / 5000원

만화로 익히는 우리말의 예절

조선일보, 국립국어연구원 엮음

만화스토리 작가인 김수한씨가 구성하고, 만화가 홍광표씨가 그림을 그린 이 책은,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란 제목으로 조선일보사와 국립국어연구원이 벌인 화법표준화사업의 성과를 모은 것. 날마다 쓰면서 알쏭달쏭한 우리말의 호칭과 지칭어, 경어법, 인사말 등의 올바른 화법을 만화로 쉽게 익히게 한 책.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고려원미디어 / A5신 / 314면 / 4800원

慣習調査報告書

정금식 지음

조선총독부가 1910년부터 3년에 걸쳐 간행한 「관습조사보고서」를 번역, 분석한 국역판. 전국적 규모의 관습과 관습법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출간된 이 책은, 식민통치의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주목할 만한 연구의 결과물로, 우리 법생활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통한 현재의 진단이란 의의도 내포하고 있다. 당시의 우리 민법과 상법, 그리고 우리와 일본 대만의 관습조사의 현황도 살필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 A5신 / 528면 / 6400원

아주 좋은 친구

제프리 아처 지음 / 유진화 옮김

명문 옥스포드 출신으로 국가대표 육상선수, 최연소 하원의원, 보수당 부당수 등 다채로운 이력을 지닌 영국작가의 반전이 돋보이는 단편만 12편을 모아 엮은 소설집. 실화를 바탕으로 짜여진 이 단편집은 치밀한 구성에 의해 12가지의 이야기가 모두 종말에는 극적인 반전으로 끝맺어진다. 세밀한 심리묘사와 웅장한 스케일이 작가특유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늘 / A5신 / 296면 / 4800원

아직도 못 가본 고향

오사베 히데오 지음 / 송미령 외 옮김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연재됐던 소설의 단행본을 번역한 것으로, 작가는 일본의 중견 소설가로 작품을 통해 일본인구의 2%에 지나지 않는 크리스천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전국시대에 태어나 절대권력자였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오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상대로 맞서 싸웠던 천주교신자 다카야마 우콘의 일대기를 다룬 이 소설은, 영주에게 가장 소중한 영토를 버리고 조국마저 등졌던 역사적 인물을 통해 일본인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과학사 / A5신 / 각 408, 386면 / 각 5800원

우정론

프란체스코 알베로니 지음 / 조석현 옮김
정신과의사 출신의 사회학자로 현재 이태리 밀라노대학의 교수인 저자는 인간의 내면분석을 토대로 사랑과 우정, 인간관계에 관한 많은 저서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우정을 “만남의 세공품”이라고 표현하는 저자는 우정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관계이고, 우정과 애정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 등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다. 이 책 「우정론」과 함께 연어론인 「여자는 즐기고 있는 남자를 중요한다」를 펴내기도 했다.

새터 / A5신 / 228면 / 4500원

새 시대의 상점 경영백과

박달규 지음

시장개방의 물결로 인해 판매전의 양상은 전면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태의연한 재래식 경영만으로는 활로를 개척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 이 책은 바로 주먹구구식의 상점경영에서 탈피해 새 시장구조에 체계적인 경영비결을 일러주고 있는데, 상점경영의 기본자세부터 입지와 구조, 상품구입과 관리, 판매술, 진열법, 자금관리 요령 등이 이 책의 주요 골자다.

한국산업훈련연구소 / A5신 / 234면 / 4500원

주홍빛 이삿짐 트럭

존 치버 지음 / 서숙 옮김

단편의 대명사인 안톤 체홉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미국작가의 아름다운 단편모음. 전후 미국문단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확보했던 작가는 다양한 인물을 작품에 끌어들여, 자기 세대의 고통스럽고 복잡한 삶의 양상을 정직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리의 천사’ ‘세상의 모습’ ‘청춘, 그리고 아름다움’ 등이 책에 실린 15편의 단편은 화려한 기교보다는 담백한 단편소설의 진수를 맛보게 한다.

정우사 / A5신 / 280면 / 4500원

내 마음의 캘린더

캐럴라인 밀러 지음 / 우계숙 옮김

하버드 출신의 미국의 한 주부가 펴낸 이 책은, ‘타인의 신발을 보라’ ‘자존심은 시렁 위에 얹어 두어라’ ‘90초 안에 자신을 보여라’ ‘어제와 화해하라’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에 투자하라’ 등 131개의 단락으로 이뤄져 있는데, 「배꼽」 「동냥그릇」 등의 후속편으로 나온 ‘삶과 철학 시리즈’ 가운데 한권.

장원 / A5신 / 318면 / 5000원

여자 셋이 모이면

편집부 엮음

자신의 일과 경제력으로 사회적 성취를 맛

보려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기획된 이 책에는, “여자 셋이 모이면 집시를 깬다”는 통념을 “여자 셋이 모이면, 소망을 품고 차별을 거부하고, 내일의 바람을 일으킨다”로 바꾸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신문기자, 대학강사, 영화평론가, 보험회사 직원 등 전문직 여성 17명의 개성있는 목소리로 엮여져 있는데, 요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운동과 여성학관련도서와 함께 곁들여 읽을 만한 책.

동녘 / A5신 / 270면 / 5000원

죽음 뒤의 삶

조지 미크 지음 / 김병관 옮김

인간의 삶 뒤에 오는 또다른 삶, 즉 죽음 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책. 죽음 뒤에도 삶이 있다는 증거로 이 책은,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와 종교적 문헌, 육체이탈, 영계통신, 憑依, 심령사진, 유령 등 갖가지 오컬트 현상의 소개와 시간과 공간의 관계, 물질과 에너지의 불멸이라는 이미 정립된 과학이론을 바탕으로 영의 물질화 현상, 영매를 통한 영과의 대화 등을 직접 실험한 지은이의 증언”으로 구성됐다.

자현마을 / A5신 / 304면 / 4500원

계간지

경제와 사회 (93년 봄)

[특집] 한국사회의 노동자와 중산층의 정치의식 ▲87년 이후 노동자층의 의식변화와 노사관계(임영일) ▲신중산층 근로자들의 의식적 특성 연구(박준식) ▲계급별 투표행태를 통해 본 14대 대선(정영태)

[쟁점토론 및 평론] ▲시민운동이나, 민중운동(론)이나(백옥인) ▲새로운 가능성의 개방과 지켜지지 않은 약속(강인철) ▲조속한 시각에 대한 조급한 기대(최종철)

[기고논문] ▲한국 국가성격논의에 관한 방법론적 재고(김일영)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취업구조의 변화(김기환) ▲통일독일의 여성복지와 여성운동(박명선)

[기획논문] 80년대 한국 화이트칼라의 계급적 상태의 변화(박해광)

[사회과학 연구동향] 북한사회 연구동향 : 80년대말 이후를 중심으로(산사연 북한사회반) 한울 / A5신 / 316면 / 5800원

외교 (93년 봄)

[특집] 한국 경제외교의 과제와 방향 ▲새 국제질서의 형성과 한국 경제외교의 방향(이한빈) ▲한국 경제외교의 당면과제(허승) ▲1993년 한국경제의 과제와 전망(장승우) ▲국제교역환경 전망과 대응책(김철수) ▲과학기술외교의 과제와 전망(김진현) ▲한국의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최연홍) ▲경제지역주의의 대두와 한국의 대응(이승곤) ▲클린턴 행

정부와 한미 경제관계(최인범) ▲한일 경제외교에 관한 소고(조규하) ▲북방정책의 추진과정과 대북방 경제협력정책 방향(황인정) ▲민간경제외교의 역할과 중요성(구평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현황과 전망(홍정표) ▲한국국제협력단 :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남기)

[자료]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사 ▲한베트남 수교의 의의 ▲베트남의 대외정책과 베트남 한국관계의 전망(웬푸빈) ▲중국 러시아 공동성명 ▲1992년도 양자 다자조약체결 실적 및 의의

한국의교협회 / A5신 / 172면 / 비매품

학술지

배달말 (제17호)

[논문] ▲‘V어하다’와 ‘V어지다’의 형성원리에 대한 연구(황병순) ▲일제시대의 국한 혼용문 연구(조규태) ▲‘지역용어’ 규범론(려중동) ▲‘노릇’에 대하여(이병모) ▲주제말 이음의 문맥적 기능(임규홍) ▲혈버어트의 한국어 계통론과 한국어학 연구(박병채) ▲이두용언 ‘슴(是)-’계 어휘에 대하여(배대은) ▲‘ㄴ지’의 변천에 대하여(김규하) ▲‘요한시집’의 주제에 대하여(김정문) ▲한설야의 ‘황혼’ 연구(조구호) ▲회곡 「동승」에 대하여(이광국) ▲「玉匣夜話」의 짜임새와 속뜻(김수업) ▲대화이론으로 본 계모형 고소설의 변모와 그 사회적 의미(김재용) ▲최익현의 순창의병과 유소연구(이태룡)

배달말학회 / A5신 / 310면 / 5000원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원화 공급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출판물 유통구조 때문에 인력과 경비를 낭비하는 출판사들이 많습니다. 한국출판협동조합은 출판물 종합 유통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35년여 동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보관과 배송, 그리고 수금 등 영업의 모든 문제를 한국출판협동조합의 일원화 공급을 통해 해결한다면 출판사들은 보다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일원화 공급 참여 출판사
 - 경연사 • 과학과 예술 • 광문각 • 극동문화 • 기다리 • 대훈사 • 보문당
 - 보성사 • 법률신문사 • 사회문화연구소 • 서광사 • 성음각 • 양문각
 - 엘멘출판 • 열화당 • 요가선 • 유림문화사 • 음악예술사 • 이론과실천
 - 오덕원 • 전통문화연구소 • 전파과학사 • 정문출판사 • 중원문화
 - 증권서적(출판부) • 하남출판사 • 한국산업경영연구소
 - 한국 어학 개발원 • 한국외대(출판부) • 향학사 • 현대미학사
 - 현상과 인식 • 화평사 • 한림원
- 한국출판협동조합

연락처 : <총무부> 전화 716 · 5621~3 팩스 716 · 2995, 716 · 2999
<공급부> 716 · 5616~9